
『不欺錄』을 통해 본 정조 대 抄啓文臣의 활동과 기억

이은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 I. 머리말
- II. 독서를 중시한 정조와 초계문신 신현
- III. 奎瀛新府 7인이 기록한 초계문신 활동
- IV. '불기록' 후일담과 정조에 대한 기억
- V.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정조 대 抄啓文臣이 기록한 『不欺錄』의 작성 배경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1798년 11월 25일, 정조는 鑄字所에서 입직 중이던 초계문신에게 공책을 내리며 한 달 동안 각자 읽은 책을 기록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정조는 속이지 말고 성실히 기록하라는 뜻에서 ‘불기록’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신현을 비롯한 초계문신은 자신들이 읽은 책의 제목과 범위, 독서 방식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또한 이 기간에 초계문신으로서 응한 製述과 講經 시험 및 주자소에서 편찬한 서적의 편집·교정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도 기록했다. 정조가 승하한 후에 신현은 『불기록』에 자신이 지은 序文을 적어 동료 문신들에게 보내면서, 각자 과거를 추억하는 詩文을 지어 직접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기록』은 학자 군주 정조와 젊은 시절을 함께한 관료들의 영광과 추억이 담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불기록, 정조, 초계문신, 신현, 권준, 김계은, 김근순, 조석중, 홍석주, 황기천

투고일자 2023년 8월 21일 심사일자 2023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9월 25일
<https://doi.org/10.25024/jsg.2023..50.298>

I. 머리말

규장각 및 장용영 설치, 금난전권 폐지, 수원 화성 건설 등 정치·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업적을 남겼던 정조는 抄啓文臣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바탕으로 조정의 젊은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이들과 함께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조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선발된 초계문신의 대부분은 이후 公卿大夫가 되었고 그 가운데 훌륭한 문학의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평해졌다.¹⁾

초계문신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만든 『文臣講製節目』과 문신의 재교육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연구되었다.²⁾ 교육 과정에서 생산된 초계문신의 著作 역시 주목받았는데, 이들의 시권을 모은 科文集을 통해 정조의 御題 출제 경향과 문체정책의 일면을 살펴보았다.³⁾ 정조가 내린 條問과 이에 답한 초계문신의 條對는 군신 간의 학문적 논쟁 및 정조 經學觀의 주요 자료로 연구되었다.⁴⁾ 이처럼 초계문신은 정조의 학문 정치를 대표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임금이 곧 스승이라는 '君師'를 논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⁵⁾ 개인의 문집을 통해 학자와 관료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거나 이 시기 작성한 시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⁶⁾

과거에 막 합격한 신진 관료에게 초계문신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임금의 관심

- 1) 『國朝寶鑑』 卷70, 正祖朝 2, 庚子, 「四年十一月」.
- 2) 김광년, 「奎章閣의 1781년: 『內閣日曆』을 통해 본 抄啓文臣 應製의 실상」, 『동양고전연구』 85, 2021; 김문식 외,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설석규, 「奎章閣 研究(下): 正祖代의 政局과 관련하여」, 『대구사학』 31, 1986; 정상준,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교육사학연구』 30, 2020;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최두진, 「정조대의 초계문신 교육제도 연구」, 『교육사상연구』 23, 2009; 한영우,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지식산업사, 2008.
- 3)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2016; 박선이,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30, 2018;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義』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2016.
- 4) 김문식, 『尙書講義를 중심으로 본 正祖의 經學사상』, 『한국사연구』 75, 1991; 백민정, 「『경사강의』를 통해 본 정조 시대 학문적 논쟁의 양상」, 『국학연구』 16, 2010; 안병길, 「正祖 御製條問의 經學觀: 『經史講義』, 大學條問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2001; 한예원, 「조선 실학시대 君臣間의 학문 활동: 『詩經講義』를 통해 본 正祖와 丁若鏞의 경우」, 『남명학연구』 16, 2003; 함영대, 「경사강의(經史講義)의 안과 밖: 조선학술사에서 군사(君師)라는 지위」, 『태동고전연구』 44, 2020.
- 5)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백민정, 「정조의 사대부 인식과 정치철학적 입장 연구」, 『한국실학연구』 20, 2010;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 6) 김문식,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동양학』 76, 2019; 심경호, 「鶴棲 柳台佐의 廣和와 應製에 관하여」, 『동양학』 76, 2019.

아래 교육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간을 부담이라 느꼈을 수도, 쟁쟁한 동료들 사이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순간을 만끽했을 수도 있다. 초계문신 제도 자체와 학문 정치를 표방한 정조에 대한 나름의 생각도 정립되었을 것이며, 이는 관찬 사료보다 초계문신 출신 관료가 개인적으로 남긴 문서나 일기 등에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국가나 임금 차원이 아닌 관료의 시선에서 작성한 초계문신 자료에 주목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廣州 平山申氏 申大羽 典籍⁷⁾’ 중 정조 대 초계문신이었던 實齋 申絢(1764~1827)과 동료들이 작성한 『不欺錄』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이며 초계문신의 면면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798년(정조 22) 왕명에 따라 작성했던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현재 장서각에서 소장 중인 자료는 그 이후 신현이 베껴 쓴 1798년의 내용에 더해 초계문신들의 후일담까지 수록된 寫本이다. 본고에서는 1798년에 작성된 현전하지 않는 원본 자료 또는 1798년의 내용만을 지칭할 때는 ‘불기록’, 현전하는 사본 자료를 지칭할 때는 『불기록』으로 구분하여 표기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弘齋全書』와 신현의 일기 『實齋日乘』을 통해 ‘불기록’을 작성하게 된 배경으로서 평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조와 주요 인물인 신현의 초계문신 관련 일화를 소개하겠다. 그리고 『불기록』에서 확인되는 초계문신의 활동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참여한 이들이 남긴 시문 속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II. 독서를 중시한 정조와 초계문신 신현

『홍재전서』 「日得錄」은 경연에 참석한 규장각 閣臣이 정조의 語錄을 文學·政事·人物·訓語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특히 ‘문학’에서는 평소 독서를 즐겨하

7) 申大羽, 申絢 등과 관련된 조선 후기 자료인 1차 3,419점(고문서 2,554점, 고서 862점, 유물 3점)과 申鼎均, 申學泳 등과 관련된 근현대 자료인 2차 3,648점(고문서 3,402점, 고서 7점, 유물 23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중시하던 정조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조는 어려서부터 반드시 일과를 정해 놓고 독서했으며, 밤이 깊어도 반드시 책을 읽어야만 비로소 편히 잠을 잤다.⁸⁾ 신하들이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자 자신은 천성적으로 내관이 나 궁녀들과 수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글 뜻을 토론하거나 조용히 앉아 독서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고 내가 좋아하면 피곤하지 않다는 옛사람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했다.⁹⁾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근래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는 물음에 새로 출사한 신하가 읽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과정을 세워 날마다 규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하루 한 편의 글이 1년에 몇 질의 經籍, 몇 년간 七書가 되며 따로 독서할 날을 구하려면 읽을 수 있는 때가 없다고 말했다.¹⁰⁾ 정조는 자신이 유학의 道統을 계승하고 정치와 학문을 주도하는 三代의 이상적인 군주인 君師를 실현했다고 생각했는데¹¹⁾ 독서가 바로 학문 장려의 기본이었다. 이처럼 꾸준한 독서 습관을 중요시 여긴 정조는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게 된다.

나는 정무를 보는 여가 시간에 三餘의 공부를 쉬지 않아 經史를 따지지 않고 매년 겨울마다 반드시 한 질의 책을 通讀하곤 했다. 올겨울에는 우연히 『四部手圈』을 편찬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校閱한 여러 초계문신으로 하여금 날마다 課讀하게 하고 별도로 책자를 마련하여 읽은 것을 기록하게 했다. 그런 다음 ‘不欺錄’이라고 이름했으니 이는 朱子가 魏應仲에게 준 편지의 뜻을 붙인 것이다. ‘속이지 않는다[不欺]’는 것은 우러러 하늘을 속이지 않고 고개 숙여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큰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또한 인재를 기르고 성취시키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 【직제학 신 李晩秀가 무오년에 기록한 것이다.】¹²⁾

8)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1, 文學 1, 「原任直閣臣金載瓚癸卯錄」.

9)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1, 文學 1, 「原任直提學臣鄭民始乙巳錄」.

10)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2, 文學 2, 「原任直閣臣金載瓚己酉錄」.

11) 김문식, 앞의 책, 28-35쪽.

12)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5, 文學 5, “於機務之暇, 不輟三餘之工, 毋論經史, 每冬必了得一帙書, 歲以爲常. 今冬偶因手圈之役, 令校閱之抄啓文臣, 排日課讀, 另置冊子, 記其所讀, 名之曰不欺錄, 蓋寓朱子與魏應仲書之意. 不欺者, 仰不欺天, 俯不欺心也. 此事雖小, 可以喻大, 亦出於作成之苦心. 【直提學臣李晩秀戊午錄】”

1798년 겨울에 정조는 『四部手圈』 교열에 참여한 초계문신들에게 공책을 내려 매일 독서한 것을 기록하라고 명했다. ‘불기록’이라는 제목은 朱子가 魏應仲에게 준 편지 내용 중에 “책을 읽을 때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작은 책자에 적어서 수시로 살펴보아야 한다. 남에게 묻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어정쩡한 상태로 넘어가면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내용에서 따온 것이었다.¹³⁾ 이는 정조의 발언을 담은 「일득록」의 기록관과도 통하는 제목이었다. 「일득록」을 기록하는 각신은 史官이나 다름없으니 절대로 과장하거나 틀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서 자신을 경각시키라고 했기 때문이다.¹⁴⁾

평소 정조는 독서하기 좋은 겨울, 밤, 비가 내릴 때[三餘]를 빌려 학문에 힘썼고 매년 겨울마다 책 한 짚을 읽어왔다.¹⁵⁾ 이는 정조의 수많은 藏書印 중에서 정사를 돌보는 여가에 독서한다는 뜻의 ‘萬幾之暇’, ‘萬機餘暇’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부수권』 교열에 참여한 문신 중 하나였던 신현의 일기 『실재일승』¹⁶⁾에도 ‘불기록’을 작성하라는 정조의 하교가 기록되어 있다.

25일. …밤에 공책 1권을 내려 제목으로 ‘不欺錄’ 3자를 쓰고 옆에 ‘起至月廿五日 至臘月廿五日’ 12자를 썼다. 하교하기를, “근래 밤이 길테 너희는 무엇을 읽는가? 나는 정무를 보는 틈에도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젊은 문신이 하는 것이 없겠는가. 지금 공책 1권을 내리니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주자소에서 입직하는 너희 6인은 날마다 하는 일을 기록하되, 書徒의 규례처럼 입직할 때 읽은 것과 출직할 때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하여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불기록’이라 제목을 단 것은 사실대로 기록하기를 바라서이니, 읽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적어서는 안 되고 읽은 것도 기록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른 문신과는 자별하므로 이런 하교를 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잘 알라.” 했다. 곧바로 공경히 받

13)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5, 文學 5 주석. (한국고전종합DB)

14)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2, 文學 2, 「待教臣尹行愆丁未錄」.

15) 『弘齋全書』 卷7, 詩, 「春秋完讀日, 慈宮設饌識喜, 唵示諸臣.【并小序】」.

16) 『실재일승』(F21301-01-X000199~F21301-01-X000202, 장서각)은 1784년(정조 8)부터 1807년(순조 7) 6월 30일까지 23년간의 기록을 담은 一·二·三·五 총 4책이 남아있다. 二·三은 1801년(순조 1) 2월부터 6월까지의 시점이 겹치는데 각각 書狀官으로서 갔던 국외의 使行 일정, 모친 연일정씨의 상과 같은 국내의 집안 상황을 구분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재일승』은 原本이 아닌 이후 수정하여 정리한 것인데 실제로 일기 내용 중에서 수정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타난다.

아서 이날부터 각자 읽은 것을 날마다 기록했다.【모두 아래쪽에 있다.】...¹⁷⁾

위 내용은 1798년 11월 25일 일기 중 ‘불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독서하기 좋은 겨울밤에 정조는 초계문신들에게 공책을 내리고, 당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직·출직하는 동안 하는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어람할 수 있도록 준비 하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문신들과 자별하다고 하며 진실성을 강조한 제목의 뜻을 잘 알라고 당부했다. 8일 후인 12월 3일에 정조는 ‘불기록’을 들이라 명하여 이를 어람한 뒤에 돌려주었으며¹⁸⁾ 12월 25일에 ‘불기록’의 작성이 끝났다.¹⁹⁾ 신현이 “모두 아래쪽에 있다.”라고 한 것은 일기 말미에 약 한 달간 기록한 ‘불기록’의 내용을 베껴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불기록’ 작성에 참여한 초계문신 중 하나였던 신현의 본관은 卞山이며, 자는 受之, 호는 實齋, 시호는 孝憲이다. 1764년(영조 40)에 宛丘 申大羽(1735~1809)와 延日鄭氏 사이에서 삼남으로 태어났다. 모친 연일정씨는 조선에 전래된 陽明學을 확립시킨 鄭齊斗(1649~1736)의 손녀로, 신대우는 정제두의 손녀사위이자 그의 학풍을 계승한 江華學派의 일원이기도 했다. 신현은 1794년(정조 18) 2월에 대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50세, 혜경궁 홍씨의 60세를 기념하여 열린 庭試에서 丙科 제6인으로 급제했고 얼마 후 4월에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다.

『실재일승』 초반에는 정조와의 일화, 서적 교정 등 초계문신 시절 그의 활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江東縣監으로 재직 중이던 부친 신대우를 뵈기 위해 강동 관아에 머무르던 중인 1794년 4월 14일 신현은 인편을 통해 초계문신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신임 초계문신은 속히 올라오라는 명에 따라 서울로 향했다. 서울 집에 도착한 다음 날인 22일에는 葦魚 2級과 鱒魚 1尾, 25일에는 『문신 강제절목』 1책을 하사받았으며 실제로 현전하는 책에서 內賜記를 확인할 수 있다.²⁰⁾

17) 『實齋日乘』 1, 1798년 11월 25일, “...夜下空冊一卷, 題目書以不欺錄三字, 旁書起至月廿五日至臘月廿五日十二字. 下敎曰, 近來夜長, 汝等有何所讀否? 予於萬機之暇, 猶有所下工, 況年少文臣其可無所做爲乎. 今下空冊一卷, 自今日至來月二十五日一朔之間, 汝等鑄所入直者六人, 逐日記事, 如書徒之例, 入直時所讀者, 出直時所事者, 一一載錄, 以備予親覽, 而題以不欺錄者, 欲其從實記之也, 不讀者固不可虛錄, 而讀之者亦不可不錄, 汝等與他文臣自別, 故有此下敎, 須知此意可也.” 卽祗受, 自是日各以所讀作日記.【具在下方.】...”

18) 『實齋日乘』 1, 1798년 12월 3일.

19) 『實齋日乘』 1, 1798년 12월 25일.

20) 『文臣講製節目』(F21301-01-X000313), “乾隆五十九年四月日, 內賜抄啓文臣申詢, 講製節目一件, 命除謝恩, 檢校直閣臣徐(手決)”



그림 1 신대우 초상 『文臣肖像畫帖』, 건희 3599,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신현 초상 『文人肖像一括(韓光會外十五人)』, 건희 3538, 국립중앙박물관

초계문신 제도는 학문을 숭상하는 정치[右文之治]와 인재 양성[作人之化]이라는 규장각의 이념에 입각하여 문신을 교육하기 위해 실시했다. 과거에 합격하여 승문원에 分館된 37세 이하의 참상·참하관을 대상으로²¹⁾ 의정부에서 抄選하고 규장각 각 신이 課試와 課講을 주관했다. 1781년(정조 5) 20인을 시작으로 정조 연간에는 의정부의 抄選 10회, 정조의 特敎 7회 총 17회에 걸쳐 143인이 선발되었다.²²⁾ 1794년 4월에는 신현을 비롯하여 金近淳·李存秀·徐俊輔·洪樂浚·具得魯·姜浚欽·鄭取善·洪命周 9인의 講員과 崔光泰·吳泰曾·權峻·趙萬元·曹錫中·李勉昇·金熙洛·柳台佐·宋冕載·柳遠鳴·尹致永 11인의 製員까지 총 20인이 선발되었다. 이후에는 특교로 인해 黃基天·洪爽周·金履載·金啓溫 4인의 강원과 李東萬·申鳳朝·金履永·金熙周·李英發·金處巖·嚴者·李弘謙 8인의 제원 총 12인이 추가로 선발되었다.²³⁾

신현이 초계문신으로서 참여한 시기에는 그의 부친 신대우도 정조와의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1796년(정조 20) 신현은 親試와 과강에서 수석을 차지했는데, 이때

21) 초계문신은 신임 관료를 선발하고 40세가 되면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예외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신현이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1794년에 신봉조는 50세, 김이영·김처암은 40세로 초계문신의 年限을 이미 넘었고, 엄기와 김이계는 1790년에 선발된 적이 있었던 전임 초계문신 출신이었다.

22) 정상준, 앞의 논문, 110쪽.

23) 『實齋日乘』 1, 1794년 4월 14일 新抄啓講製文臣座目.

정조가 공석인 淸道郡守에 초계문신 중 수석을 차지한 자의 아버지를 임명하라고 하여 신대우가 임명되었다.²⁴⁾ 1797년(정조 21) 신현은 정조가 현토한 『史記英選』과 『八子百選』을 검토하고 온당하지 않은 곳에 자신의 의견을 단 찌를 붙이라는 명을 받고 이를 수행했다.²⁵⁾ 정조는 서체를 통해 누가 붙인 찌인지 알겠다고 하면서, 특히 신현이 찌를 붙이느라 풀을 많이 써서 주자소의 물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청도군수인 그 아버지가 풀값을 감당하게 하라며 웃었다.²⁶⁾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조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신하들에게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신현의 집안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신대우는 강화 용일리 집에서 容安室이라는 서재를 짓고 申縉(1756~1835), 申緯(1760~1828), 신현 세 아들에게 학문을 전수했으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三經의 암송이었다.²⁷⁾

훈계하기를, “書冊은 내가 애호하는 것으로 근래에 자못 鳩集했다.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잃어버리거나 아이들을 경계하여 상하거나 더럽히지 말고 잘 관리하여 看讀하라.” 했다. … 현에게 훈계하기를, “三經을 輪誦하는 것이 네가 安身立命 하는 일이다. 근래 많이 停闕하니 모름지기 틈나는 대로 익숙히 읽고 그만두거나 빼먹지 말라. 達庚·豹壬도 각각 외울 것이 있는데 네가 먼저 執契하여 앞장선다면 아이들이 따라 본받을 테니 어찌 매우 좋지 않겠는가.” 했다.²⁸⁾

위의 글은 신현의 일기 『日錄』²⁹⁾ 중 1814년(순조 14) 7월 30일 뒤에 첩부된 별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별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부친 신대우가 1809년(순조 9) 숨을 거두기 전에 자손들에게 남긴 말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대우는 책을 좋아하여 많이 모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잃어버리거나 집안의 아이들이

24) 『實齋日乘』 1, 1796년 12월 10일, 12월 20일.

25) 『實齋日乘』 1, 1797년 3월 18일~3월 22일.

26) 『實齋日乘』 1, 1797년 3월 23일.

27) 오보라, 「申絢의 『日錄』 연구: 기록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4쪽.

28) 『日錄』, 「別紙」, “敎曰, ‘書冊吾所愛好, 近頗鳩集, 須勿借人散失, 切戒童幼傷污, 護惜看讀也.’ …敎絢曰, ‘輪誦三經, 是汝安身立命事, 近來多停闕, 須隨暇循熟, 毋至廢闕也. 達庚·豹壬亦各有所誦, 汝既執契躬先, 而兒輩從而效之, 豈不甚好耶.’”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편,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成都日錄』 영인본·역주본, 경기도박물관, 2008, 348쪽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29) 경기도박물관 소장 『日錄』 15책은 『실재일승』 이후에 해당하는 1808년(순조 8) 11월 11일부터 1821년(순조 21) 12월 30일까지의 일기이다.

훼손시키게 하지 말고 잘 관리하여 읽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현이 安身立命 할 방법으로 三經의 輪誦을 강조하며 빼먹지 말라고 했고, 그가 술선수범하여 꾸준히 독서한다면 자연스레 손자인 達庚과 豹壬도 본받을 것이라고 했다.³⁰⁾ 신대우가 유언 중 하나로서 책의 관리와 꾸준한 독서를 강조할 정도였다면, 평소에도 집안에서 책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에도 독서를 강조하는 정조의 모습이 신현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현은 부친의 훈계를 충실히 이행하여 책들을 보관했고 이는 후손들에 의해 대부분 전래되었다. 19세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을 보면 사부분류에 따라 책을 분류했고 그 수량과 함께 內賜本 여부 등의 특징도 기재되어 있다. 그중 낯설지 않은 제목이 눈에 띄는데 바로 정조가 초계문신들에게 작성을 명했던 ‘불기록’이다.

Ⅲ. 奎瀛新府 7인이 기록한 초계문신 활동

신현의 일기 『실재일승』 말미에서 확인되는 ‘불기록’의 내용은 17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간의 기록이다. 그런데 ‘광주 평산신씨 신대우 전적’에는 실제로 같은 제목의 책 한 권이 남아있다.

〈그림 3〉은 현전하는 『불기록』³¹⁾으로 신현이 1798년 당시 정조가 어람한 원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작한 사본이다.³²⁾ 『불기록』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0) 달경과 표임은 각각 신현의 아들인 申命濩(1790~1851)와 조카 申命淵(1792~1854)을 가리킨다. 신명연은 신현의 둘째 형 신작의 아들로 태어나 큰형 신진의 양자가 되었다.

31) 『불기록』(F21301-01-X000222, 장서각): 筆寫本; 不分卷1冊(35張); 線裝; 10行字數不定; 33.6×21.2cm

32) 『書冊目錄』(F21301-01-X000383) 雜傳記類 항목에는 ‘不欺錄一卷又二件’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신현이 1798년 이후에 사본과 그 副本까지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불기록』 표지(왼쪽)와 1798년 11월 25일 면(오른쪽)

표 1 『불기록』 구성

번호	구분	작성 시기	작성자
1	序	무오(1798, 정조 22) 12월 30일	申絢
2	記錄	무오 11월 25일~12월 25일	
3	簡札	계해(1803, 순조 3) 9월	
4	詩, 序	계해 11월 25일	金近淳
5	跋	을축(1805, 순조 5) 9월 21일	洪爽周
6	文	을축 11월 하순	黃基天
7	文	을축 12월 상순	權駿
8	序, 詩	병인(1806, 순조 6) 초여름	金啓溫

신현의 일기 『실재일승』에 기록된 ‘불기록’과의 가장 큰 차이는 17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정조의 명에 따라 적은 내용뿐만 아니라 초계문신들이 이후에 지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2>는 1798년 당시 ‘불기록’ 작성에 참여한 초계문신의 명단이다.

1798년 ‘불기록’ 작성에 참여한 초계문신은 권준·김계은·김근순·신현·조석중·홍석주·황기천 총 7인이다. 권준·김근순·신현·조석중은 1794년 문과 급제 후 같은 해 4월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다. 정조는 자신이 직접 채점한 시권에서 여러 번 높은 등급을 맞아 詞賦와 筆翰을 익히 알고 있는 황기천, 영의정 홍낙성의 손자로서 부유한

표 2 1798년 ‘불기록’ 작성에 참여한 초계문신 명단

번호	이름	생몰년	분관	자	호	문과 급제	참여 일수
1	權峻	1758~?	安東	陽仲	?	1794년 정시 갑과 장원	4일
2	金啓溫	1773~1825	江陵	玉如, 玉汝	寤軒	1798년 식년시 병과 40위	3일
3	金近淳	1772~1820	安東	汝仁	十靑, 歸淵	1794년 알성시 갑과 장원	30일
4	申絢	1764~1827	平山	受之	實齋	1794년 정시 병과 6위	31일
5	曹錫中	1763~1804	昌寧	叔正	鶴軒	1794년 정시 병과 14위	26일
6	洪爽周	1774~1842	豊山	成伯	淵泉	1795년 식년시 갑과 3위	26일
7	黃基天	1760~1821	昌原	羲圖	菱山, 后院	1794년 정시 병과 17위	28일

집안의 박학다식한 선비인 홍석주, 才華가 뛰어나다고 잘 알려진 김계운을 각각 1794년, 1795년(정조 19), 1798년 특교에 의해 초계문신으로 추가 선발했다.³³⁾ 권준은 신현의 둘째 형인 신작의 처남으로, 신현과 1785년(정조 9) 겨울에 泮村에서 20여 일 동안 책을 읽은 후에 함께 급제한 인연이 있었다.³⁴⁾

그런데 앞서 살펴본 『실재일승』 내용에 따르면 정조가 11월 25일 밤에 ‘불기록’을 작성하라고 명한 초계문신은 6인이었다. 신현의 행적을 기록한 『實齋事狀』에서 보이는 ‘불기록’ 관련 일화에서는 4문신 외 2인으로 권준·황기천이 추가되었다고 했다.³⁵⁾ 4문신은 김근순·신현·조석중·홍석주로 신현의 일기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다. 이들은 1797년 3월 1일에 정조의 명으로 주자소에 들어가 『園幸乙卯整理儀軌』의 편집·교정을 시작으로 인출 작업을 담당했다.³⁶⁾ 또한 『사기영선』과 『팔자백선』에 찌를 붙여 수정했으며,³⁷⁾ 의궤 監印의 경력을 인정받아 『春秋左氏傳』을 감인하는 인원에 포함되었다.³⁸⁾ 이들은 『사부수권』의 편집과 교정에 가장 오래 참여했고, 정조가 승하한 후 1801년(순조 1)에 목판으로 간행한 책을 하사받기도 했다.³⁹⁾

홍석주가 정계에서 은퇴한 후 저술한 『鶴岡散筆』을 보면 정조가 말년에 신진 초계문신을 선발하여 주자소에 직속하게 하고 ‘奎瀛新府’라고 이름했는데, 가장 먼저 자

33) 정상준, 앞의 논문, 114쪽.

34) 『實齋日乘』 1, 1785년 11월 18일; 1794년 2월 29일.

35) 『實齋事狀』(F21301-01-X000244, F21301-01-X000248).

36) 『實齋日乘』 1, 1797년 3월 1일, 3월 24일; 1798년 4월 6일, 4월 9일.

37) 『實齋日乘』 1, 1797년 3월 18일, 3월 19일.

38) 『實齋日乘』 1, 1797년 윤6월 29일. 『日省錄』 정조 21년 12월 20일(음묘) 기사에 따르면 편찬에 공로가 있어 상을 받은 명단에는 4문신뿐만 아니라 황기천도 포함되었다.

39) 『實齋日乘』 2, 1801년 7월 19일.

신을 비롯한 김근순·신현·조석중이 뽑혔고 이어서 권준·황기천·김계은, 가장 나중에 이준수·김이재가 합류했다고 회고했다.⁴⁰⁾ ‘규영신부’는 당시 규장각에 속한 주자소의 별칭으로, 초계문신들은 주자소에서 직속하며 정조의 명으로 편찬하는 책의 교정·인출 등의 작업을 담당했다. ‘규영신부’로서 선발된 초계문신 중 김근순·신현·조석중·홍석주 4인을 주축으로 이후 합류한 권준·황기천·김계은까지 총 7인이 ‘불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표 3 초계문신 7인의 1798년 11월 25일~12월 25일 활동 기록

일자	권준	김계은	김근순	신현	조석중	홍석주	황기천
11.25	-	-	-	入直 做追試 ‘水利議’·‘禁讓議’ 讀「淮陰侯傳」·‘蒯生曰足下~忍而就於此’ 42행 10번 屬「無逸」, 「都人士之什」, 「巽卦」·「兌卦」 1번	-	-	-
11.26	-	-	入直 讀「樂毅傳」 118행 20번, 「屈原傳」 79행 10번 看「仲尼弟子列傳」 1회	讀어제 읽은 범위 20번 屬「君爽」·「文王」~「蘇」·「渙卦」·「節卦」 1번	-	-	-
11.27	-	-	入直(仍直) 讀「屈原傳」 20번, 「張耳陳餘傳」 235행 10번 看「商君列傳」 1회 淵讀「信陵君傳」·「范雎傳」 1번	讀「淮陰侯傳」·‘項王亡將~不亦宜乎’ 57행 30번 熟讀「淮陰侯傳」 3번 屬「蔡仲之命」·「械樸」~「皇矣」·「中學卦」·「小過卦」 1번	-	-	-
11.28	-	-	讀「張耳陳餘傳」 3번, 「信陵君傳」 2번, 「范雎傳」·「樂毅傳」·「屈原傳」 1번 看「張儀列傳」·「陳軫列傳」·「公孫衍列傳」 1회	讀「鄒生傳」 80행 15번 熟讀「孟嘗君傳」·「平原君傳」 4번 屬「多方」·「靈臺」~「文王有聲」·「既濟卦」·「未濟卦」 1번	-	-	入直 讀「汲黯傳」 111행·「李廣傳」 154행·「聶政傳」 57행 각 20번 屬「周南」·「召南」·「悲風」 1번

40) 洪奭周, 『鶴岡散筆』 卷1; 강석중, 「연천 홍석주의 교유시에 대하여」, 『한국한사연구』 19, 2011, 14쪽.

일자	권준	김계은	김근순	신현	조석중	홍석주	황기천
11.29	-	-	讀「淮陰侯傳」·「淮陰侯韓信~諸侯所擊」 61행 10번, 「八月~所及也」 59행 2번 溯讀「伍子胥傳」·「蘇秦傳」·「孟嘗君傳」·「平原君傳」 2번 看「穉里子甘茂列傳」·「穉侯列傳」 1회	讀「陸賈傳」 72행 15번 熟讀「伯夷傳」·「管仲晏嬰傳」·「蘇秦傳」 1번 讀「立政」·「生民」~「鳧鷖」·「繫辭上傳」 제1~5장 1번	-	-	入直(仍直) 讀「荊軻傳」 177행 15번, 「游俠傳」·「韓子曰~共笑之也」 37행 20번 讀「鄆風」·「衛風」 1번
11.30	書進繪音 1통 讀「五經百篇」, 「周易」·「乾卦」·「坤卦」 20번	-	書進繪音 1통 讀어제 읽은 범위 8번 溯讀「張耳陳餘傳」 1번 看「白起王翦列傳」·「孟子荀卿列傳」 1회	書進繪音 1통 讀「袁盎傳」·「袁盎者~吳王厚遇盎」 59행 10번 讀「周官」·「假樂」~「洞酌」·「繫辭上傳」 제6~8장 1번	書進繪音 1통 讀「孟子」·「梁惠王」 上篇 上半 30번	入直 監印繪音 讀「史記英選」 제3권 합 1번	書進繪音 1통 讀「伯夷傳」·「管仲晏嬰傳」 각 10번, 「信陵君傳」 1번
12.1	讀「乾卦」 10번, 「坤卦」 30번	-	讀「淮陰侯傳」·「於是信問~虜楚卒」 61행 5번 看「虞卿列傳」·「春申君列傳」 1회	讀어제 읽은 범위 5번, 「袁盎傳」·「盎告歸~錯等謂耶」 65행 15번 讀「君陳」·「卷阿」~「板」·「繫辭上傳」 제9~10장 1번	讀「梁惠王」 上篇 下半 30번, 下篇 上半 10번	入直(仍直) 監印繪音 讀「荊軻傳」·「荊軻者~豈丹之心哉」 65행 50번 溯讀「伯夷傳」·「管仲晏嬰傳」·「伍子胥傳」·「蘇秦傳」·「孟嘗君傳」·「平原君傳」·「信陵君傳」·「范雎傳」·「樂毅傳」·「屈原傳」·「張耳陳餘傳」·「淮陰侯傳」 각 1번	讀「魯朱家傳」·「郭解傳」 74행 20번 讀「王風」 1번
12.2	讀「泰卦」·「大有卦」·「復卦」 30번	-	讀어제 읽은 범위 5번, 「漢四年~倍義乎」 60행 10번 看「廉頗藺相如列傳」 1회	熟讀「鄆生陸賈傳」·「袁盎傳」 5번 讀「顧命」·「蕩抑」·「繫辭上傳」 제11~12장 1번	入直 讀「梁惠王」 下篇 上半 20번, 下篇 下半 30번 合讀上·下篇 1번, 「公孫丑」 上篇 上半 5번	讀「荊軻傳」·「荊軻坐定~裝爲遺荊卿」 41행 50번 溯讀「鄆生陸賈傳」·「袁盎傳」·「吳王濞傳」 1번	讀「滑稽傳」 40번 讀「鄆風」·「齊風」·「魏風」 1번
12.3	入直 讀「繫辭上傳」 제 1~5장 50번	-	讀「淮陰侯傳」·「蒯生曰~亦宜乎」 100행 10번 統讀「本傳」 3번 溯讀「張耳陳餘傳」 1번 看「田單列傳」 1회	讀「吳王濞傳」·「吳王濞者~反遲禍大」 41행 15번, 「信陵君傳」 10번 讀「康王之誥」·「桑柔」·「雲漢」·「繫辭下傳」 제1~4장 1번	讀「公孫丑」 上篇 上半 25번, 下半 30번 合讀上篇 1번	讀「刺客傳」·「燕國有勇士~以報太子也」 38행 50번 合讀 제3권 1번 溯讀「伯夷傳」·「管仲晏嬰傳」·「伍子胥傳」·「蘇秦傳」·「孟嘗君傳」·「平原君傳」 1번	讀「貨殖傳」·「老子曰~非以富耶」 82행 40번 溯讀「伯夷傳」·「管仲晏嬰傳」 1번 讀「唐風」·「秦風」 1번

일자	권준	김계은	김근순	신현	조석중	홍석주	황기천
12.4	-	-	<p>讀「鄴生傳」 81행 15번, 「陸賈傳」 72행 10번 看「魯仲連鄒陽列傳」 1회</p>	<p>入直 讀「吳王濞傳」 '三年 冬楚王朝~敬以聞' 77행 15번 熟讀「淮陰侯傳」 2번 歸「畢命」·「崧高」~ 「韓奕」·「繫辭下傳」 제5~8장 1번</p>	<p>讀「公孫丑」 下 篇 上半 30번, 下半 30번 合讀下篇 1번</p>	<p>讀「刺客傳」 '於 是左右~豈妄也 哉' 31행 50번 合讀제2권 1번</p>	<p>讀「貨殖傳」 '漢 興~謂也' 98행 30번 熟讀「平原君 傳」·「信陵君 傳」 1번 歸「陳風」·「檜 風」·「曹風」 1번</p>
12.5	-	-	<p>入直 讀「袁盎傳」 115행 15번, 「吳王濞傳」 '吳 王濞~東市' 142행 10번 看「賈誼列傳」·「呂不 韋列傳」 1회</p>	<p>讀「吳王濞傳」 '七國 反書聞~吳王兵既 破敗走' 64행 15번, 「鄴生陸賈傳」·「袁 盎傳」 3번, 「信陵君 傳」 6번 歸「君牙」·「江漢」~「召 旻」·「繫辭下傳」 제7~12장 1번</p>	<p>讀「滕文公」 上 篇 上半 30번 做追試 '水利 議'</p>	<p>讀「游俠傳」 '韓子 曰~共笑之也' 37행 50번 合讀제3권 1번 熟讀「伯夷傳」·「管 仲晏嬰傳」·「伍子 胥傳」·「蘇秦傳」· 「孟嘗君傳」·「平 原君傳」 1번</p>	<p>讀「貨殖傳」 '今 有~非也' 84행 40번 熟讀「淮陰侯 傳」 1번 歸「邕風」 1번</p>
12.6	-	-	<p>讀「鄴生陸賈傳」·「袁 盎傳」 2번, 「吳王濞 傳」 '則遣~錯耶' 100행 10번 統讀「本傳」 1번 看「李斯列傳」 1회</p>	<p>讀「吳王濞傳」 '於是 天子制詔~豈盎錯 耶' 58행 15번 熟讀「吳王濞傳」 2번, 「伍子胥傳」 8번 歸「罔命」·「清廟之 什」·「巨工之什」·「說 卦」 제1~10장 1번</p>	<p>讀「滕文公」 上 篇 下半 30번 合讀上篇 1번, 「滕文公」 下篇 上半 10번</p>	<p>讀「魯朱家傳」·「郭 解傳」 74행 50번 熟讀「信陵君傳」 1번</p>	<p>入直 讀「太史公自 敘」 20번 歸「鹿鳴之什」 1번</p>
12.7	-	-	<p>統讀「吳王濞傳」 3번, 「陸賈傳」·「袁盎傳」 1 번, 「魏其武安侯傳」 10번 看「蒙恬列傳」 1회</p>	<p>讀「魏其武安侯傳」 74행 15번, 「伍子胥 傳」 2번, 「范雎傳」 4번 歸「呂刑」·「閔予小子 之什」·「說卦」 제11장 1번</p>	<p>讀「滕文公」 下 篇 上半 20번, 下半 30번 合讀下篇 1번</p>	<p>入直 讀「貨殖傳」 '老子 曰~編戶之民乎' 36행 50번, '昔 者越王~非以富 耶' 47행 20번 熟讀「范雎傳」·「樂 毅傳」·「屈原傳」· 「張耳陳餘傳」· 「淮陰侯傳」·「鄴 生陸賈傳」·「袁盎 傳」·「吳王濞傳」 1번 合讀제3권 1번</p>	<p>讀「貨殖傳」 '老 子曰~豈非以 富耶' 83행 40번 歸「白華之什」· 「彤弓之什」 1번</p>
12.8	-	-	<p>應試 應講 上同</p>	<p>讀「范雎傳」 2번 應試 應講 上同</p>	<p>入直 讀「離婁」 上篇 上半 4번 應試 5월 親試, 5·6월 課試</p>	<p>讀어제 읽은 범위 5번 應試 應講 5월 親 試, 5·6월 課 試, 2~7월 課講</p>	<p>應試 應講 上同</p>
12.9	-	-	<p>應試 應講 上同</p>	<p>入直 應試 應講 6월 親試, 10·11월 課試, 8~11월 課講</p>	<p>應試 上同</p>	<p>應試 應講 上同</p>	<p>應試 應講 上同</p>

일자	권준	김계은	김근순	신현	조석중	홍석주	황기전
12.10	-	入直	應試11월 親試 讀「貨殖傳」‘老子~民乎’ 10번	應試(11월) 親試 讀「貨殖傳」‘老子曰~眞蕃之利’ 120행 10번 語「文侯之命」·「駟」~「泮水」·「序卦」上篇 1번	應試(11월) 親試 夜有故不讀	應試(11월) 親試 讀그저께 읽은 범위 25번 合讀「貨殖傳」·「太史公自敘」 1번	應(11월) 親試
12.11	-	-	讀「貨殖傳」어제 읽은 범위 30번 看「魏豹列傳」·「彭越列傳」 1회	讀「貨殖傳」‘洛陽東賈~素封者非也’ 140행 10번, 「太史公自敘」 155행 7번 熟讀「貨殖傳」·「太史公自敘」 1번 語「費誓」·「閼宮」·「序卦」下篇 1번	有故不讀	讀「貨殖傳」‘韓興~眞蕃之利’ 36행 25번 合讀「貨殖傳」·「太史公自敘」 1번	入直 讀「貨殖傳」‘韓興~謂也’ 98행 20번 語「祈父之什」~「無羊」 1번
12.12	-	-	入直 應試 應講12월 親試·課試·課講	應試 應講上同 讀「貨殖傳」‘老子曰~編戶之民乎’ 36행 15번 語「秦誓」·「商頌」·「雜卦」 1번	應試上同 讀「離婁」上篇 上半 26번	應試 應講上同 讀어제 읽은 범위 25번	應試 應講上同
12.13	-	入直	製「謝箋文」 讀「貨殖傳」전에 읽은 범위 10번	讀어제 읽은 범위 25번 語「堯典」·「周南」·「乾卦」 1번	讀「離婁」上篇 下半 30번 合讀上篇 1번, 「離婁」下篇 上半 20번	讀「貨殖傳」‘洛陽東賈~大體如此矣’ 34행 50번, ‘總之楚越~亦足羞也’ 44행 10번 看「資治通鑑」제44권 19판	製「謝箋文」
12.14	-	-	製「恩杯頌」 讀「貨殖傳」전에 읽은 범위 10번	製「恩杯銘」 讀「貨殖傳」‘越王~王者埒富’ 40행 5번 語「舜典」·「召南」·「坤卦」 1번	製「恩杯詩」 讀「離婁」下篇 上半 10번, 下篇 下半 30번 合讀下篇 1번	入直 製「太學恩杯詩」 讀어제 읽은 범위 3번 看「資治通鑑」15판	讀「游俠傳」‘韓子曰~復出焉’ 54행 30번 語「祈父之什」·「節南山」~「雨無正」 1번 製「恩杯詩」
12.15	-	-	領賞進箋 讀「貨殖傳」전에 읽은 범위 20번	領賞 讀어제 읽은 범위 35번 語「大禹謨」·「邶風」~「匏有苦葉」, 「屯卦」·「蒙卦」 1번	入直 領賞 讀「萬章」上篇 上半 20번	領賞 直堂后	領賞 讀「游俠傳」어제 읽은 범위 30번
12.16	-	-	入直追省記 讀「貨殖傳」전에 읽은 범위 10번	讀어제 읽은 범위 10번	讀「萬章」上篇 上半 10번, 下半 30번	仕進堂后	讀「滑稽傳」 60번 語「小旻之什」~「何人斯」 1번

일자	권준	김계은	김근순	신현	조석중	홍석주	황기천
12.17	-	-	入直 書役『御製恩杯詩集』 校正『泮儒恩杯詩集』	校正『恩杯詩集』 宿鑄所	校正『恩杯詩集』	仕進堂后 宿鑄所	讀『貨殖傳』‘老子曰~民乎’ 36행 10번 宿鑄所
12.18	-	-	入侍都政	入直 校正『恩杯詩集』	入侍都政以吏郎	入侍都政 宿鑄所	入侍都政以吏郎
12.19	-	-	入侍都政	校正『恩杯詩集』 宿鑄所	入侍都政	入侍都政 宿鑄所	入直 入侍都政
12.20	-	-	入侍都政 監印『恩杯詩集』	入直 校正 監印『恩杯詩集』	入侍都政 監印『恩杯詩集』	入侍都政 監印『恩杯詩集』	入侍都政
12.21	-	入直	監印『恩杯詩集』 讀『貨殖傳』전에 읽은 범위 10번 看『黠布列傳』 1회	監印『恩杯詩集』 讀『車陶謨』·『谷風』~ 『二子乘舟』·『需卦』· 『訟卦』 1번	監印『恩杯詩集』 讀『萬章』下篇 上半 10번	監印『恩杯詩集』 讀14일에 읽은 범위 27번	監印『恩杯詩集』 讀『游俠傳敘』 10번
12.22	-	-	監印『恩杯詩集』 讀『貨殖傳』‘昔者~垆富’ 40행 20번	讀『貨殖傳』‘烏氏僕~眞蕃之利’ 44행 20번 讀『益稷』·『邶風』·『師卦』·『比卦』 1번	監印『恩杯詩集』 讀『萬章』下篇 上半 20번	入直 監印『恩杯詩集』 讀어제 읽은 범위 10번 讀『詩經』‘周南’~ 『幽風』 1번 看『資治通鑑』 42판	監印『恩杯詩集』 讀『周南』·『召南』· 『幽風』· 『鹿鳴之什』· 『商頌』 1번
12.23	-	-	讀『貨殖傳』어제 읽은 범위 40번, 『游俠傳』 5번 看『韓王信列傳』·『盧縮列傳』 1회	讀어제 읽은 범위 30번, (『貨殖傳』) ‘洛陽東賈~果布之漆’ 27행 50번 讀『禹貢』·『衛風』· 『小畜卦』·『履卦』 1번	讀『萬章』下篇 下半 30번 合讀上·下篇 1번	監印『恩杯詩集』 讀(『貨殖傳』) ‘凡編戶之民~以曹邴氏也’ 33행 50번 讀『詩經』‘鹿鳴’~ 『都人士』 1번 看『資治通鑑』 41판	入直 監印『恩杯詩集』 讀『游俠傳』‘韓子曰~復出焉’ 54행 30번 讀『北山之什』 1번
12.24	-	-	讀『貨殖傳』어제 읽은 범위 40번 統讀전에 읽은 범위 2번 看『田儻列傳』 1회	讀『貨殖傳』‘潁川南陽~亦足羞也’ 50행 50번 讀『甘誓』·『五子之歌』· 『胤征』·『王風』· 『泰卦』·『否卦』 1번	入直 讀『告子』上·下 篇 10번 監印『恩杯詩集』	讀(『貨殖傳』) ‘齊俗賤奴虜~非也’ 37행 50번 讀『詩經』‘文王’~ 『商頌』 1번 看『資治通鑑』 19판	監印『恩杯詩集』 夜陪受誓戒班
12.25	-	-	入直 監印『恩杯詩集』 製進‘春帖延祥詩’	讀『貨殖傳』‘凡編戶之民~非也’ 63행 30번 讀『湯誓』·『仲虺之誥』· 『鄭風』~『有女同車』· 『同人卦』·『大有卦』 1번	讀『盡心』上·下 篇 10번 製進‘春帖延祥詩’	監印『恩杯詩集』 讀『貨殖傳』 1번 讀『大學』·『中庸』 각 5번 看『資治通鑑』 11판	製進‘春帖延祥詩’

° : ‘魯朱家’와 ‘郭解’의 이야기가 수록된 『游俠傳』을 가리킨다.

˘ : 『실재일승』과 『불기록』 12월 8일에는 6월 친시로 되어있으나 『내각일력』에 의해 5월 친시로 수정했다.

˚ : 『실재일승』과 『불기록』 12월 9일에는 5월 친시로 되어있으나 『내각일력』에 의해 6월 친시로 수정했다.

〈표 3〉은 『실재일승』과 『內閣日曆』을 참고해서 한 달 동안 초계문신들이 ‘불기록’에 기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준은 기록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平海郡守에 임명되었고, 곧 임지로 떠났기 때문에 참여한 날이 4일로 적었다.⁴¹⁾ 김계온은 등장하는 일수가 3일로 가장 적고 입직했다는 사실만 기록했는데 ‘불기록’을 거의 완성해갈 즈음에야 그도 輪直하라는 명이 내려졌다.⁴²⁾ 이 때문에 정조로부터 11월 25일에 명을 받은 문신은 6인이었지만 실제로는 7인이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불기록’에 기재된 초계문신의 활동은 크게 ‘勤務’, ‘試講’, ‘讀書’, ‘製述’, ‘校印’, ‘頒賞’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勤務’는 ‘入直’, ‘直’, ‘宿’, ‘仕進’, ‘入侍’이다. ‘入直’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담당했고 연이어 이를 입직한 경우에는 ‘仍直’이라고 적었으며, 입직한 1인이 해당 일자의 기록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 ‘宿’은 하던 작업을 밤까지 끝마치지 못한 경우였다.⁴³⁾ ‘直’과 ‘仕進’은 당시 승정원 가주서로서 堂后에 있었던 홍석주의 경우였다. ‘入侍’는 12월 18~20일에 김근순·조석중·홍석주·황기천이 참석한 都目政事였는데 그중 조석중·황기천은 이조좌랑이었다.

‘試講’은 ‘應試’와 ‘應講’으로 초계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製述 시험과 講經 시험에 해당한다. 정조는 초계문신 교육에 실효가 있도록 제술과 강경 중에서 각자 잘하는 것에 따라 강원이 될지 제원이 될지를 선택하게 했다. 다만 한쪽만 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원은 四孟朔의 과강에, 강원은 매달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친시에 응시하게 했다.⁴⁴⁾ 제술 시험인 과시(試製)는 論·策·序·記·說·議·辨·題跋·咨文·奏文·表·箋·啓·詔·制·誥·頒教文·教書·批答·露布·檄·上樞文·箴·銘·頌·贊·排律·律詩·古詩·賦(律賦) 총 30가지의 문체를 대상으로 했다.⁴⁵⁾ 강경 시험인 과강(試講)은 『大學』의 大文과 註, 『論語』의 集註, 『孟子』의 各章 아래 주, 『中庸』의 大문과 주, 『詩傳』의 六義와 大旨, 『書傳』의 篇題, 『周易』의 卦序 순서로 진행했으며 경서가 끝난 뒤에는 『史記』를 강하게 했다.⁴⁶⁾ 각신이 주관하는 과시와 과강 외에도 임금인 정조가

41) 『승정원일기』 1801책, 정조 22년 12월 5일(갑오), 6일(을미); 『實齋日乘』 1, 1798년 12월 5일, 6일.

42) 『不欺錄』, 「不欺錄序(申詢)」.

43) 『實齋日乘』 1, 1798년 12월 17일.

44) 실록 기사에 따르면 초계문신 講製에 관한 추가 절목을 반포한 시기는 1781년(정조 5) 3월 10일이나(『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3월 10일(계미)) 현전하는 『문신강제절목』에서는 ‘講製追節目[甲寅]’이라 하여 추가 절목이 1794년(정조 18)에 마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45) 『文臣講製節目』 제10조; 『奎章閣志』 卷2, 敎習, 「講製」.

46) 『文臣講製節目』 제3조; 「文臣月講冊名次第」; 「講製自止分排」.

직접 행차하여 초계문신을 시험하는 친시(親臨試製), 親講(親臨試講)이 있었다.⁴⁷⁾
 <표 4>는 『실재일승』, 『내각일력』을 바탕으로 정리한 초계문신의 1798년 12월 應試·應講 현황이다.

표 4 초계문신 6인의 1798년 12월 應試·應講 현황

일자	구분	시제(친시·과시)/범위(과강)	응시자(성적)	신현 시권	비고
12.8	5월 친시	옥연과 삼협에서 건곤 두 괘를 강하다 [玉淵三峽講乾坤二卦](七言古詩)	김계온 김근순 신현(三下) 조석중 홍석주 황기친	○	限申時, 退去鑄字所製進
	5월 과시	하루 만에 몇집을 이루다[一日茅棟成](五言四韻律詩)	김계온 김근순(三中一, 居首) 신현(三中) 조석중 홍석주 황기친	○	限明日午時
	6월 과시	관옥(冠玉)(七言四韻律詩)	김계온 김근순 신현(三中) 조석중 홍석주 황기친(三上一, 居首)	○	
	2월 과강	『史記英選』 제2편 「伯夷傳」 ‘孔子序列~可異焉’	김계온(純通) 김근순(純通) 신현(純略) 홍석주(純通) 황기친(純略)	-	
	3월 과강	『史記英選』 제2편 「蘇泰傳」 ‘期年以出~足於棗栗矣’	김계온(二通一略通) 김근순(純通) 신현(純略) 홍석주(純通) 황기친(純通)	-	
	4월 과강	『史記英選』 제2편 「孟嘗君傳」 ‘宣王二年~威王乃止’	김계온(一通二略略) 김근순(純通, 居首) 신현(純略) 홍석주(二通一略通) 황기친(二通一略通)	-	
	5월 과강	『史記英選』 제3편 「信陵君傳」 ‘魏王釋博~公子以國政’	김계온(純不) 김근순(二略一粗略) 신현(純粗) 홍석주(純不) 황기친(純通, 居首)	-	
	6월 과강	『史記英選』 제3편 「樂毅傳」 ‘及武靈王~去趙適魏誤讀’	김계온(純略) 김근순(二略一粗略) 신현(純不) 홍석주(純不) 황기친(純通, 居首)	-	
7월 과강	『史記英選』 제4편 「淮陰侯傳」 ‘信釣於城下~笑信以爲佞’	김계온(一通一略一粗粗) 김근순(二略一粗略) 신현(純通, 居首) 홍석주(一略二粗粗) 황기친(純不)	-		
12.9	6월 친시	연화전에서 일을 아뢰다[奏事延和殿](賦)	김계온 김근순 신현(三中) 조석중 홍석주 황기친	○	限午正, 退去鑄字所製進

47) 혹서·혹한기에는 각자 집에서 제술과 강경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정조의 御題를 바탕으로 시권을 작성하거나 정조와 試官의 條問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奎章閣志』 卷2, 教習, 『親臨』.

일자	구분	시제(친시·과시)/범위(과강)	응시자(성적)	신현 시권	비고
12.9	10월 과시	수차(水車)(五言四韻律詩)	김계은(草次中) 김근순(次上) 신현(草 三中) [′] 조석중(三下) 홍석주(草次中) 황기천 (三中)	○	今夜製進
	11월 과시	석달간 익힌 문사의 지식이 충분 하다 [三冬文史](七言四韻律詩)	김계은(三下) 김근순(三下) 신현(三中) 조석중(三中) 홍석주(三下) 황기천(三 中)	○	明日製進
	8월 과강	『史記英選』 제4편 「鄭生傳」 ‘鄭生乃深~倨見長者’	김계은(二粗一不粗) 김근순(純不) 신현(二通一略通, 居首) 홍석주(純略) 황기천(一通一略一粗粗)	-	
	9월 과강	『史記英選』 제4편 「吳王濞傳」 ‘上患吳會稽~國用富饒’	김계은(純不) 김근순(純不) 신현(一通 二略略) 홍석주(二通一略通, 居首) 황기천(純 不)	-	
	10월 과강	『史記英選』 제5편 「汲黯傳」 ‘黯爲人性倨~不得久居位’	김계은(純不) 김근순(純粗) 신현(一通 二略略) 홍석주(二略一粗略) 황기천(純通, 居 首)	-	
	11월 과강	『史記英選』 제5편 「游俠傳」 ‘鄙人有言曰’	김계은(純通, 居首) 김근순(純粗) 신현 (純不) 홍석주(純粗) 황기천(一略二粗粗)	-	
12.10	11월 친시	물고기와 용이 나와서 들었다 [魚龍出聽](七言四韻律詩)	김계은(三中) 김근순(三中) 신현(三上) 조석중(三下) 홍석주(三中) 황기천(三 中)	○	退詣籌字 所製進
12.12	12월 친시	옛적에 나에게 조나라 장수 이제 의 어짊을 말한 일이 있다 [昔有爲我言趙將李齊之賢](賦)	김계은(次上) 김근순(三上, 居首) 신현(限後) 조석중(次中) 홍석주(限後) 황기천(三下)	×	限申時
	12월 과시	가지 위에 봄이 이미 무르익었네 [春在枝頭已十分](五言四韻律詩)	김계은(次上) 김근순(限後) 신현(次上) 조석중(三中) 홍석주(草三下) 황기천 (三下)	○	限燭刻
	12월 과강	『史記英選』 제6편 「貨殖傳」 ‘子贖既學~非苟而已也’	김계은(純不) 김근순(一通二略略) 신현(純略) 홍석주(純粗) 황기천(純 通)	-	

′ : 『실재일승』 12월 8일에는 신현의 성적이 粗로 되어있으나 『내각일력』에 의해 略으로 수정했다.

″ : 『실재일승』 12월 8일에는 신현의 성적이 略으로 되어있으나 『내각일력』에 의해 粗로 수정했다.

″″ : 『실재일승』 12월 9일에는 신현의 성적이 三中으로 되어있으나 『내각일력』에 의해 草三中으로 수정했다.

초계문신 7인 중에서 평해군수에 임명되어 임지로 떠난 권준을 제외한 총 6인이 참여했으며, 특히 김계은은 ‘불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각일력』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응시, 응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원 출신이었던 조석중은 과강에 응하지 않았다. 강원은 점차 친시·과시 및 과강에 모두 응하게 된

반면에, 제원은 1794년까지 四孟朔 과강에 응했지만 1795년 이후로 아예 과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⁴⁸⁾

규정상 친시·과시와 친강은 매월 1회, 과강은 매월 2회씩 시행되어야 했으나⁴⁹⁾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해 12월에는 8일·9일·10일·12일 총 4일 동안 당월은 물론 미처 시행하지 못한 이전의 친시·과시 및 과강까지 한꺼번에 시행했다. 친시는 5월·6월·11월·12월로 칠언고시·칠언율시와 부를, 과시는 5월·6월·10월·11월·12월로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를 짓게 했다. 과강은 『史記英選』을 대상으로 2~12월 시험을 실시했다. 이때는 경서의 강이 모두 끝났고 『사기』를 강할 차례였는데 장차 과강은 『사기영선』을 가지고 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⁵⁰⁾ 『사기영선』의 列傳 중에서 제2편 「伯夷傳」·「蘇秦傳」·「孟嘗君傳」, 제3편 「信陵君傳」·「樂毅傳」, 제4편 「淮陰侯傳」·「酈生傳」·「吳王濞傳」, 제5편 「汲黯傳」·「游俠傳」, 제6편 「貨殖傳」을 강했다.

시권을 제출해야 하는 친시와 과시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친시의 경우 12월 8~10일에 정조가 편전으로 직접 행차하여 주관했지만 주자소로 물러나 지어 올리게 했으며, 과시는 집으로 돌아가서 짓고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 현재 장서각에 있는 신현 시권의 일부는 초계문신 시절 작성한 것이며, ‘불기록’에 언급된 친시·과시의 시권으로는 12월 12일에 신현이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했다는 친시 시권을 제외한 8점이 남아있다.

〈그림 4〉는 1798년 12월 10일에 지난 11월 친시로서 ‘물고기와 용이 나와서 들었다[魚龍出聽]’라는 시제에 대해 칠언율시로 지은 시권이다. 시권 우측 하단에는 封彌法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적 사항 ‘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申絢製進’을 기재했으며, 이 시권으로 ‘三上’의 점수를 받았다. 〈그림 5〉는 1798년 12월 12일에 당월인 12월 과시로서 ‘가지 위에 봄이 이미 무르익었네[春在枝頭已十分]’라는 시제에 대해 오언율시로 지은 시권으로 ‘次上’의 점수를 받았다. 역시 봉미법으로 봉한 인적 사항에는 ‘弘文館修撰申絢’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현은 이날 정사에서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었다.⁵¹⁾

‘讀書’는 ‘불기록’ 작성의 본래 목적에 가장 걸맞은 활동에 해당한다. 제원으로로서

48) 『實齋日乘』 1, 1794년 4월 14일.

49) 『奎章閣志』 卷2, 敎習, 「講製」, 「親臨」.

50) 『實齋日乘』 1, 1798년 7월 16일.

51) 『승정원일기』 1801책, 정조 22년 12월 12일(신축).



그림 4 1798년 12월 10일 신현 찬시 시권
F21301-01-X000053,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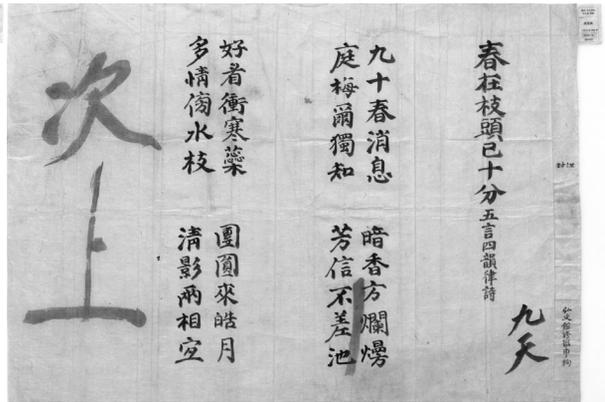


그림 5 1798년 12월 12일 신현 과시 시권
F21301-01-X000055, 장서각

과강에 응시할 필요가 없었던 조석중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과강에 대비하여 『사기영선』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다만 김근순의 기록에서는 『사기영선』에 수록되지 않은 각종 열전이 나타나므로 『사기영선』과 『사기』를 함께 읽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영선』에는 정조가 직접 지은 ‘親撰示監印諸人’이 수록되어 있는데, 독자들이 ‘기이하면서도 속임수를 쓰지는 않고 直書하여 숨김이 없는 법[以觀其奇而不詭, 直而無隱之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정조가 강조한 ‘불기’와 통하는 바이다.

초계문신들은 책의 편명뿐만 아니라 읽은 범위 및 횟수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으며 읽은 책은 『맹자』·『대학』·『중용』·『詩經』·『주역』과 『資治通鑑』·『五經百篇』으로 다양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독서 방법은 ‘讀’이었으며 이외에도 ‘看’·‘統讀’·‘熟讀’·‘合讀’·‘溯讀’·‘誦’과 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했다. 이는 자신의 독서 방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깊이를 달리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看’은 내용보다는 글자에 주목하여 가볍게 읽어 내려간 경우로 김근순·홍석주가 사용했다. ‘合讀’은 다른 책과 연관하여 함께 읽은 경우로 조석중·홍석주가 사용했으며, ‘統讀’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은 경우로 김근순의 독서 방식에서 발견된다. ‘熟讀’은 글 뜻을 생각하며 자세히 읽은 경우로 신현이 사용했으며, ‘溯讀’은 내용을 소급하여 읽은 경우로 김근순·홍석주·황기천이 사용했다. ‘誦’은 신현·홍석주·황기천이 『시경』을 노래 부르듯이 외며 읽을 때의 방식으로 표기했다.

‘製述’로는 ‘倣’, ‘製’와 ‘製進’, ‘書進’이 있다. ‘倣’는 신현이 4월 과시 追試의 시제



그림 6 1798년 「御製勸農政求農書繪音」(1097, 실학박물관)

‘禁釀議’, 8월 친시 추시의 시제 ‘水利議’로 제출한 것이다.⁵²⁾ ‘製’는 한 해의 성적을 합산한 결과[都計畫] 각각 친시와 과강의 수석을 차지한 김근순과 황기천이 12월 13일에 지어 올린 謝箋文⁵³⁾과 12월 14일에 여러 초계문신이 『恩杯詩集』을 위해 지은 글에 해당한다. ‘製進’은 12월 25일에 김근순·조석중·황기천이 지은 ‘春帖延祥詩’를 가리킨다. 11월 30일에 ‘書進’한 ‘繪音’은 ‘勸農繪音’인데⁵⁴⁾ 같은 날 정조가 지은 ‘御製勸農政求農書繪音’과 연관이 있다.

‘校印’은 ‘書役’, ‘校正’과 ‘監印’이며 주자소에서 책의 교정·서사·인쇄 등과 관련하여 참여한 것으로 「윤음」, 『은배시집』에 해당한다.

〈그림 6〉은 『불기록』에 언급된 「윤음」, 즉 「어제권농정구농서윤음」이다. 영조가 籍田에서 親耕한 지⁵⁵⁾ 60년 되는 해인 1799년(정조 23)을 기념하여 정조가 친히 지은 윤음으로 整理字로 인쇄한 것이 특징이다. 1798년 11월 30일 未時에 정조가 지어서 전 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날 밤부터 이틀에 걸쳐 홍석주가 감인했다. 12월 1일 정조

52) 『實齋日乘』 1, 1798년 11월 25일. 해당 시권 2점도 현전하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53) 『일성록』 620책, 정조 22년 12월 15일(갑진).

54) 『實齋日乘』 1, 1798년 11월 30일.

55) 『승정원일기』 884책, 영조 15년 1월 28일(을해).

는 새로 인쇄한 윤음의 반포를 명했고⁵⁶⁾ 당시 신현의 일기에서도 1건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⁵⁷⁾

정조는 농업의 장려를 위해서 농민뿐만 아니라 관료의 역할도 중요하며, 수리시설과 농기구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勸農에 도움이 될 방안을 올리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農書를 편찬하겠다고 했다. 이에 응해 글을 올린 관료 및 유생 중에는 「新溪縣農書條對」를 올린 신현의 둘째 형 신작도 있었다. 신작은 농사 경험이 없었지만 황해도 신계현의 土俗과 직접 마을을 돌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이양법의 嚴禁과 각지의 풍토에 적합한 농기구 사용의 중요성 등을 주장했다.⁵⁸⁾

『은배시집』은 곧 『太學銀杯詩集』으로 태학생, 즉 성균관 유생과 각신·초계문신의 시를 엮어 정리자로 인쇄한 5권 2책의 활자본이다. 1798년 12월 정조는 日次儒生 시험 성적 우수자들을 꺾로 불러 다시 시험을 보게 한 후 연회를 열어 法醞을 하사했다. 그리고 임금이 빈객에게 연향을 베푸는 내용을 읊은 『시경』 『鹿鳴』의 문구 ‘나에게 훌륭한 손님이 있네[我有嘉賓]’가 새겨진 銀杯를 성균관에 하사했다. 그리고 연회에 참여한 성균관 유생 249인과 각신·초계문신 33인이 지어 올린 시에 어제시·어제서를 포함하여 편찬하고 주자소에 인쇄를 명했다.⁵⁹⁾

12월 14일에 김근순은 ‘恩杯頌’, 신현은 ‘恩杯銘’, 조석중·홍석주·황기천은 ‘恩杯詩’를 지었는데, 이들의 작품은 권5에 실린 초계문신의 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계운의 시문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7일부터 교정, 20일부터 감인을 시작했으며 김근순은 어제은배시의 서역을 담당했다. 작업은 해를 넘겼는데 성균관 유생 및 각신·초계문신의 시가 수록된 原編의 인쇄는 끝났지만 정조의 어제와 성균관 대사성 李晩秀의 總叙 등을 수록한 卷首는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⁶⁰⁾ 1799년 3월 22일에 인쇄가 완료되고 신현은 책을 하사받았으며⁶¹⁾ 현전하는 책에서 내사기를 확인할 수 있다.⁶²⁾ 완성된 『태학은배시집』은 西庫 13건, 宙舍樓·外奎章閣·성균관 등에

56) 『승정원일기』 1801책, 정조 22년 12월 1일(경인).

57) 『實齋日乘』 1, 1798년 12월 3일.

58)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15-應旨進農書1』, 농촌진흥청, 2009, 79-90쪽.

59) 『弘齋全書』 卷181, 群書標記 3, 御定, 「太學恩杯詩集六卷[刊本]」.

60) 『實齋日乘』 2, 1799년 3월 16일.

61) 『實齋日乘』 2, 1799년 3월 22일.

62) 『御製太學銀杯詩集』(F21301-01-X000545~X000546, 장서각), “嘉慶四年三月日, 內賜抄啓文臣副司果中詢, 太學銀杯詩集一件, 命除謝恩. 直提學臣李(手決)”

1건씩 반포했고 성균관 유생 및 각신·초계문신 등에게도 1건씩 하사했다.⁶³⁾

‘頒賞’은 매년 12월에 그 해 시행했던 친시·과시 및 과강의 성적을 종합하는 도계획에 의해 정조가 편전에서 頒賞한 12월 15일의 일에 해당한다. 12월 12일자로 전체 성적이 발표되었는데 <표 5>는 『실재일승』과 『내각일력』을 바탕으로 정리한 초계문신의 성과와 시상 내역이다.

표 5 1798년 초계문신 친시·과시·과강 도계획 및 시상 내역

	성명(점수, 상품)
친시	金近淳(18分, 熟馬 1匹 面給) 曹錫中(16分 半, 豹皮 1令) 李勉昇(16分 半, 虎皮 1令) 金履載(16分 半, 紙 4卷·筆 5枝·墨 2笏) 申絢·姜浚欽·黃基天·金處巖(16分, 各 紙 3卷·筆 4枝·墨 2笏) 嚴著·金啓溫(15分 半, 各 紙 2卷·筆 3枝·墨 2笏) 李存秀·柳台佐(14分 半, 各 紙 2卷·筆 3枝·墨 2笏) 趙萬元(14分, 紙 2卷·筆 3枝·墨 2笏) 洪爽周(12分 半, 紙 1卷·筆 3枝·墨 2笏) 柳遠鳴(12分, 紙 1卷·筆 3枝·墨 2笏) 李英發(11分 半, 紙 1卷·筆 3枝·墨 2笏) 金熙洛(9分 半, 紙 1卷·筆 2枝·墨 1笏) 金熙周(9分, 紙 1卷·筆 2枝·墨 1笏) 李弘謙(8分, 紙 1卷·筆 2枝·墨 1笏) 李東萬(5分, 紙 1卷·筆 2枝·墨 1笏) 洪命周(2分, 紙 1卷) 鄭取善(無分) -未準試秩: 金履永(15分 半, 紙 2卷·筆 3枝·墨 2笏) 徐俊輔(9分, 紙 1卷·筆 2枝·墨 1笏) 具得魯(5分 半, 紙 1卷·筆 2枝·墨 1笏) 宋冕載(1分, 勿論)
과시	李勉昇(17分 半, 陸絃) 曹錫中(16分 半, 豹皮 1令) 金履載(16分, 虎皮 1令) 申絢·黃基天(15分 半, 各 紙 2卷·筆 3枝·墨 2笏) 趙萬元·姜浚欽·洪爽周(15分, 各 紙 2卷·筆 3枝·墨 2笏) 金啓溫(14分 半, 紙 2卷·筆 3枝·墨 2笏) 金近淳(14分, 紙 2卷·筆 3枝·墨 2笏) 李存秀(12分 半, 紙 1卷·筆 2枝·墨 1笏) 柳遠鳴(12分, 紙 1卷·筆 2枝·墨 1笏) 金熙洛·金熙周(11分 半, 各 紙 1卷·筆 2枝·墨 1笏) 李英發(9分 半, 紙 1卷) 柳台佐(9分, 紙 1卷) 李弘謙(7分 半, 紙 1卷) 洪命周(6分, 紙 1卷) 李東萬(5分, 紙 1卷) 鄭取善(無分) -未準試秩: 具得魯(5分, 紙 1卷) 徐俊輔(4分 半, 紙 1卷) 金處巖(4分, 紙 1卷) 宋冕載·嚴著(2分, 勿論)
과강	黃基天(14分, 陸六) 金近淳(13分, 豹皮 1令) 洪爽周(12分 半, 虎皮 1令) 申絢(10分 半, 紙 1卷·筆 3枝·墨 1笏) 金啓溫(9分, 紙 1卷·筆 2枝·墨 1笏) 姜浚欽(8分, 紙 1卷·筆 2枝·墨 1笏) 金履載(7分 半, 紙 1卷·筆 2枝·墨 1笏) 李存秀(5分 半, 紙 1卷·筆 2枝·墨 1笏)

‘: 『실재일승』 12월 12일자 도계획에는 ‘16분 반’이나 『내각일력』에 의해 ‘16분’으로 수정했다.

”: 『실재일승』 12월 15일에는 딱 ‘2홀’로 되어 있으나 『내각일력』에 의해 ‘1홀’로 수정했다.

도계획은 친시·과시·과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조석중은 제원으로서 과강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강 도계획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해 신현은 친시 제5인으로 장지 3권·붓 4자루·먹 2홀, 과시 제4인으로 장지 2권·붓 3자루·먹 2홀, 과강 제4인으로 장지 1권·붓 3자루·먹 1홀을 받았다. 친시 수석을 차지한 김근순은 27세로

63) 『일성록』 631책, 정조 23년 3월 28일(병술).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準職하는 대신 熟馬 1匹을 面給했고, 황기전은 과강 수석으로 陞六했다. 이외에도 ‘불기록’에서는 조석중의 ‘사정이 있어 읽지 못했다[有故不讀]’나 황기전의 ‘밤에 誓戒를 받는 班列을 보좌했다[夜陪受誓戒班]’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록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V. ‘불기록’ 후일담과 정조에 대한 기억

초계문신 7인이 참여한 한 달간의 기록은 『실재일승』 말미의 내용과 『불기록』 두 자료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불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한 이들이 과거를 추억하는 글을 추가로 기록했다는 것이며, 이를 주도한 사람은 신현이었다.

아, 이것은 선왕 무오년 말에 기록한 것입니다. 성과와 가르침을 잘 받든 뜻을 기록했으며 문득 가지고 와서 전말을 간략히 썼습니다. 기록 중 공들께서 각자 지은 시와 글을 함께 하여 아름다운 일을 기술하고 성대한 은혜를 칭송하려 했는데, 그 후 연이어 공무로 외방에 있었고 國喪과 私家의 상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갑자기 옛일이 되어 지난날의 자취를 추억하니 눈물이 펴펴 흐릅니다. 삼가 손수 1통을 베껴 공들께 돌려 가며 보내니, 공들께서도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완성할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계해년 9월 신현이 공들께 글로써 고합니다. 【지은 것은 모두 손수 써주시기를 지극히 바랍니다.】⁶⁴⁾

윗글은 1803년(순조 3) 9월 신현이 동료들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불기

64) 『不欺錄』, 「簡札(申絢)」, “嗚呼, 此先朝戊午歲終所錄也. 錄成效懷簡之義, 輒敢齋歸, 仍略敘顛末. 擬與錄中諸公各有詩若文, 以記述美事, 歌頌盛恩, 自後連以公事在外, 仍之以國哀私制, 迄未有就. 俛仰之間, 奄成陳古, 追惟曩迹, 有淚如瀉. 謹手寫一通, 輪呈諸公, 諸公於此, 亦必有同情之感, 而思所以成其事也. 癸亥九秋, 絢書告諸公座下, 所作皆以手畢書之, 至望.”

록』에 수록되어 있다. 1798년 당시 신현은 『불기록』을 정리한 후 12월 30일에 그 작성 배경에 대해 서술한 서문을 지었다. 이후 동료들에게 시문을 요청하려 했지만 1799년에 忠淸道暗行御史와 順天府使에 임명되어 임지로 떠났다. 1800년(정조 24) 6월에는 정조가 승하한 데 이어 서장관으로서 燕京에 갔던 1801년에는 모친 연일정씨가 세상을 떠나 귀국 후 상을 치러야 했다. 1803년 9월이 되어서야 신현은 『불기록』을 베껴 보내 동료 문신들에게 직접 지은 시문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불기록』을 보내 글을 요청한 것은 신현의 일기 『실재일승』에서도 확인된다.

12일. 『불기록』 1책을 베껴 쓰고 小序를 겸하여 지어 기록 중에 있는 여러 동료에게 보내 각자에게 시와 문을 요청했다. 【『불기록』의 일은 무오 11월 일에 보이며 기록에 있는 사람은 김근순·조석중·권준·황기천·김계은·홍석주이다. 모두 글을 지어 답이 왔지만 조석중은 이후 상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빠졌다.】⁶⁵⁾

신현은 1803년 8월 12일 일기에서 『불기록』을 베껴 썼으며 상을 당하고 사망했다는 조석중을 제외한 동료들의 글을 받았다고 했다. 『창녕조씨세보』에는 1804년(순조 4) 4월 조석중의 부친 曹翬振이 사망했고, 조석중은 1816년(순조 16)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⁶⁶⁾ 그런데 신현은 1804년에 조석중을 기리는 내용의 제문에서 시묘살이 하던 조석중의 부고를 듣게 되었다고 했다.⁶⁷⁾ 『실재일승』 1806년(순조 6) 9월 6일에는 조석중의 筵几가 상경하여 신현이 가서 곡을 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다.⁶⁸⁾ 따라서 조석중은 부친 조휘진의 상을 지내던 중인 1804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석중을 제외한 6인의 시문은 신현의 서문, 1798년 기록, 1803년 간찰에 이어 차례대로 실렸다.

〈그림 7〉은 초계문신 6인의 시문 각각의 첫 번째 면이며, 신현·김근순·홍석주·황기천·권준·김계은의 순서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자에 따라 서체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신현이 일괄적으로 베껴 써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⁶⁹⁾ 또한 이들의 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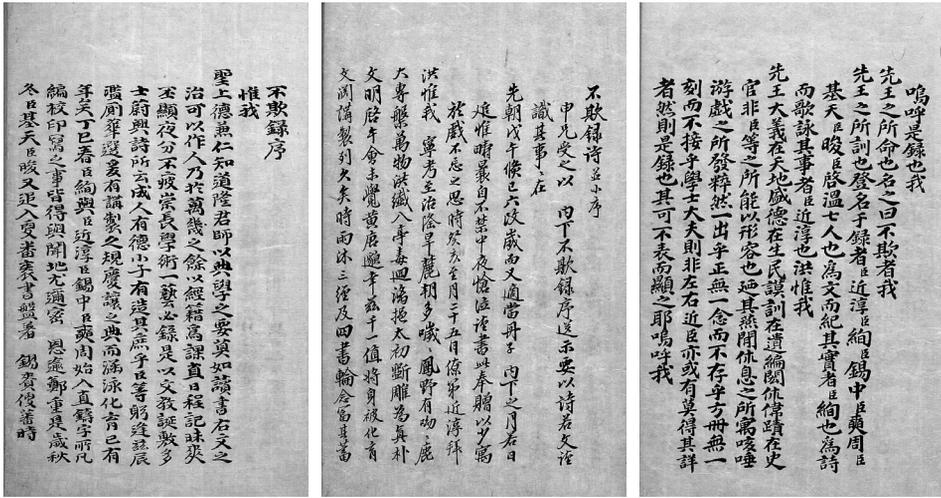
65) 『實齋日乘』 3, 1803년 8월 12일, “謄書不欺錄一冊, 兼作小序, 送示錄中諸僚, 各求詩若文. 【不欺錄事, 見戊午十一月日記錄中人, 金近淳·曹錫中·權駿·黃基天·金啓溫·洪爽周, 皆有所作答來, 而曹則其後遭喪身歿, 仍闕焉.】”

66) 창녕조씨대종회 편, 『昌寧曹氏世譜辛亥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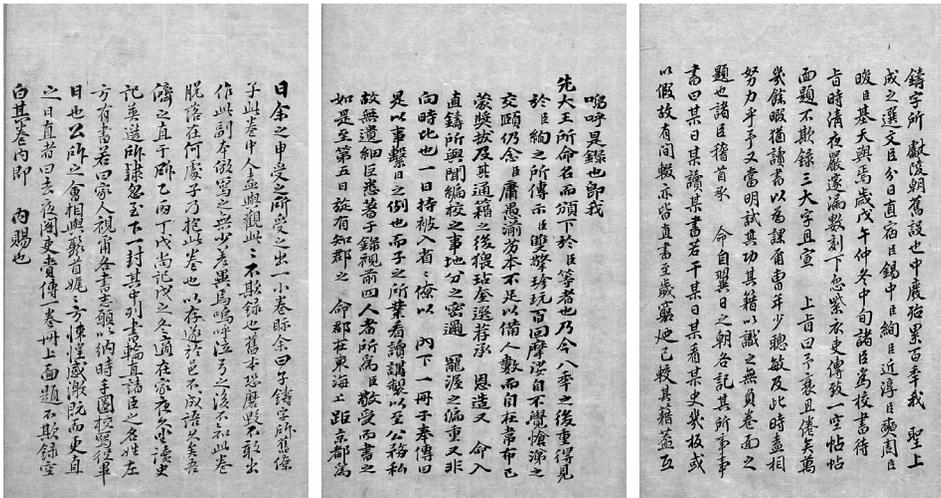
67) 申絢, 『實齋遺稿』 3, 祭文, 「祭曹叔正文」.

68) 『實齋日乘』 5, 1806년 9월 6일.

69) 이들의 글씨가 한데 모인 또 다른 자료 『朱夫子詩』(奎9770)와 비교해 보아도 각자의 친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현 → 김근순 → 홍석주



황기천 → 권준 → 김계은

그림 7 『불기록』 6인의 詩文 첫 번째 면

을 통해 각자가 기억하는 1798년 당시 상황과 '불기록' 작성을 명한 정조에 대한 기억을 확인할 수 있다.

『주부자시』는 1800년에 정조가 大臣, 각신, 초계문신, 下大夫 124명에게 주자의 시 124수를 큰 글씨로 베껴 적게 하여 편찬한 것이다. 권2에 김근순, 권7에 신현·권준·조석중, 권8에 황기천·홍석주·김계은의 친필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신현의 회고에 따르면 1797년 봄에 김근순·홍석주와 함께 처음으로 주자소에 입직하여 서책의 편집·교열·인쇄·서사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가을과 겨울에는 황기천과 권준이 합류했다. 정조를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서책과 음식의 하사가 빈번했으며, 引見할 때 자상하게 타이르는 말이 마치 집안의 父子와 같았다. 그리고 看·讀·誦·製부터 공무와 개인적인 일까지 크고 작은 것을 다 기재했으며, 일이 없으면 확실히 빠뜨렸고 일이 있으면 또한 감히 숨기지 않아 사실 그대로를 적었다고 하여 정조의 당부를 그대로 준수했음을 드러냈다.

신현 이외 나머지 초계문신이 기억하는 1798년 ‘불기록’ 작성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11월 25일 밤 ‘불기록’이라는 제목의 내사본 공책을 전해준 이는 자주색 옷을 입은 關吏였다. 각리는 공책을 전해주며 정조가 어랍할 것이니 肅命을 공경히 하고 이름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되풀이하여 읽으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다른 문신들과 비교하여 기록한 일수가 적었던 권준과 김계온은 이에 얽힌 사연도 추가적으로 기록했다. 권준은 1800년 4월에 강원도 암행견위유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복명했을 때 정조가 그를 주자소로 부르겠다고 했지만 몇 달 후 정조가 승하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김계온은 ‘불기록’을 반쯤 기록했을 즈음에 처음으로 명을 받고 다른 문신들과 함께 직속했는데, 나중에야 그 일을 듣고 책을 보게 되었으며 이것이 부러워서 중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실 김계온은 이미 1799년에 신현으로부터 책을 얻고 나서 지은 서문을 작은 상자에 보관했다. 이후 좀먹은 상자 속에 든 서문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보잘것없어 동료들의 글 뒤에 실은 것이 다행이라고 했으며, 먼저 세상을 떠난 조석중만 빠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글을 1806년 초여름에 추가로 남겼다. 또한 옛일과 관련한 五言長篇詩를 지었으나 동료들의 시와 뜻이 중복되어 신지 않고 신현에게만 따로 보여 주었는데, 그가 『불기록』에 쓰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사양하지 못하고 畵文을 실었다.⁷⁰⁾

초계문신의 시문에서 과거의 기억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내용은 제목과 관련된 ‘불기’의 의미이다. 처음 1798년 11월 25일에 명을 내렸던 정조에게 ‘불기’란 문

70) 신현 말년의 일기인 『일록』을 보면 『불기록』 작성에 참여했던 초계문신 중에서 유일하게 김계온과 신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817년(순조 17)에 李晩秀를 맹주로 하고 신현 3형제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詩社인 紅泉社에 참여했는데, 이 시사는 신현의 거주지인 義洞 企臺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보라, 「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 聯句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 2017, 40-43쪽.

신들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적기를 바라는 뜻이었다. 김계운의 기록에 따르면 명을 받은 문신들은 이를 ‘불기록’을 작성하는 일에만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독서가 문장을 꾸미고 임금의 계책을 고치는 데만 그치지 않으며, 식견과 이해를 기르고 명성과 행실을 닦아 시대에 쓰일 인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정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기’ 두 글자를 미루어 자신과 남을 속이지 말아서 가까이하는 부모, 멀리는 임금을 섬기는 일까지 힘써야 하며 ‘불기록’이라 명명한 정조의 깊은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서로를 권면하자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는 것은 물론 참여한 동료들이 두루 보았다.

신현은 정조가 ‘불기’라고 명명한 뜻을 서술하면서 임금 섬기는 것을 묻는 子路에게 ‘속이지 말라.[勿欺]’고 한 孔子의 대답, ‘거짓이 없음이 성실이니 속이지 않는 것은 그다음이다.[无妄之謂誠, 不欺其次矣]’라고 한 程子の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정조가 거짓이 없는 정성에 대한 올바른 표준을 세워 인도한 덕분에 자신들이 반드시 속이지 않는 데에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성실을 생각하는 일이고 학문을 닦는 요령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군자가 이 가르침을 흠모하여 잊지 않는 것이, 이른바 人事를 배워 天理에 통달하고 하늘을 섬겨 天命을 좇는 것이라고 했다. 홍석주는 후대에 『불기록』을 얻어서 읽는다면 자신들의 이름을 상고하여 그 시대를 尙論하고 정조가 인재를 양성한 교화를 歌頌할 것이니 이것이 ‘불기’의 효과라고 했다. 즉 ‘불기’는 시기에 따라 점차 확장되고 필요에 따라 변화해 가며 정조의 학문 정치와 인재 양성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조의 명을 받았던 1798년에도 신현의 요청으로 시문을 지었던 그 이후에도 ‘불기록’은 이들을 연결해 주는 구심점이었으며 인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가을 날씨가 맑은 요즘 영감께서는 어른 모시며 편안히 지내시는지요? 지난번 보내 주신 편지는 지금까지 감사하고 위로됩니다. ‘불기록’ 서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니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아, 이 기록이 완성된 지 8년이 지났고, 우리가 성상의 승하라는 아픔을 겪고 황망해도 어쩔 수 없게 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弘璧과 河圖 같은 謨訓이 밝게 내걸리고 높은 하늘 드넓은 땅에 혜택이 두루 미쳤으니, 깊은 산 먼 바다 구석진 곳에도 탄식하며 슬퍼 목이 메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조정의 신하와 쥔문을 지나다니면서 주머니에 붉은 붓을 넣고 아침저녁으로 좌우에 있던 자와 8년이 지나 이 기록을 다시 얻어 서문을 읽는 자는 말할 것이 있겠

습니까.

禹王의 공은 땅이 평평해지자 하늘이 이루어진 것이며 문왕의 덕은 해와 달처럼 비춘 것이니, 『詩經』과 『書經』에서 기록한 바는 아마도 이루 다 거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을 생각하고 옛사람을 사모하는 선비는 오히려 혹 중의 끈[追蠡]을 상고하여 음성을 논하고 창포 김치[昌歎]를 보존하여 嗜好를 추모하여 감히 자잘하다고 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기록에서 표창한 것이겠습니까. 문을 숭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성대함과 현자를 오른쪽에 두고 친척을 왼쪽에 두는 본질은 만세에 영원히 본받기에 충분합니다. 子夏(卜商)·子張(顓孫師)·子路(仲由)·子貢(端木賜)은 聖師를 만나고도 성군을 만나지 못했고 蕭何·曹參·房玄齡·杜如晦는 성군을 만나고도 聖門에 가서 노닐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만난 것은 또한 천 년의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사람은 모두 이 만남을 함께 했으나 오직 우리 老兄(신현)이 여러 해 동안 간직하고 있으면서 부지런히 수정하고 엮어서 글을 손수 쓰고 그 책의 서문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또 동료들에게 두루 고해 잊지 않기를 서로 권면하니, 노형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뜻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형의 서문은 온아하고 전중하며 汝仁(김근순)의 시는 박대하고 창명하여, 옛날에 인재를 만들었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형들에 훨씬 못 미치고 또한 執簡하기를 원한 후에는 감히 임금께서 교육하신 큰 덕을 잊지 못합니다. 책 속의 여러 공 중에 누가 이 그리움을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여기에 미치니 또 저로 하여금 正兄(조석중)의 부재를 더욱 슬퍼하게 합니다.

즉일 모 배.⁷¹⁾

71) 洪輿周, 『淵泉先生文集』 卷16, 書[上], 「答申受之書」, “比日秋清, 令侍候萬重? 頃枉手教, 迄今感慰, 不欺錄序文, 三復以還, 涕洟無從, 嗟乎是錄之成, 八年于茲矣, 吾輩之抱遺弓而叫蒼梧, 俱俛焉靡所逮及者, 六年于茲矣, 弘璧河圖, 謨訓昭揭, 高穹厚地, 惠澤淪浹, 深山絕海之遐, 蓋有齋吞悲咽而不能已者, 而況於在廷之臣乎, 而況於歷金門秉彤管, 朝夕而左右者乎, 而況於八年之後, 重得是錄而讀是序者乎, 大禹之功, 地平天成, 文王之德, 日月照臨, 詩書所紀, 蓋不可殫舉也, 而懷德慕古之士, 尙或考追蠡以論音聲, 存昌歎以追嗜好, 不敢以其細而遺之也, 而況是錄之所著表章乎, 崇文作人之盛, 右賢左戚之實, 足以永爲法於萬世者乎, 商·師·由·賜, 遭聖師而不能遇聖君, 蕭·曹·房·杜, 遭明君而不獲遊聖門, 吾儕之遇, 亦可謂千載之幸矣, 然吾儕數人, 莫不同此遇也, 而惟吾老兄, 積歲懷簡, 勤勤修緝, 手書其文, 首弁其卷, 卒又遍告同志, 交勸以不忘, 如老兄者, 眞可謂有心人矣, 老兄之序, 溫雅典重, 汝仁之詩, 博大昌明, 昔年作人之效, 亦可觀矣, 如少弟者, 無能爲役於諸兄, 亦願執簡而後者, 不致忘教育之大德也, 卷中諸公, 孰不同此懷者, 言及於斯, 又令人重傷正兄之不在也, 即日某拜.”

위 간찰은 홍석주가 신현에게 보낸 것으로 홍석주의 문집 『淵泉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편집된 채 문집에 실렸기 때문에 원본의 작성일자가 남아있지 않지만, 내용에 의해 발문을 작성해 보낸 즈음인 1805년(순조 5) 가을에 주고받았다고 추정된다. 그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승하한 정조를 모두가 그리워할 것이며, 특히 친인척보다 賢者를 우선 등용한 右賢左戚의 논리를 통해 규장각 초계문신을 선발한 일을 칭송했다. 또한 신현[老兄]의 서문과 김근순[汝仁]의 글을 칭찬하며 정조가 추진했던 초계문신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불기록’에 참여한 이들 모두 그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라 하고 조석중[正兄]이 세상을 떠나 함께 하지 못한 사실을 슬퍼했다.

홍석주는 영·정조 대 대표적인 閥閥 가문 출신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노론을 표방했기 때문에 소론계 강화학파였던 신현과는 궤를 달리했다. 그러나 초계문신 시절 동고동락한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가문과 黨色에 개의치 않으며 『불기록』에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 신현이 지은 서문은 그의 글을 엮은 『實齋遺稿』에,⁷²⁾ 홍석주가 지은 발문은 『연천선생문집』에 수록되었다.⁷³⁾ 각리 출신의 閭巷文人 朴允默(1771~1849)이 홍석주를 위해 지은 輓詩에서도 ‘불기록’을 작성하여 올렸으며 정조가 이를 매일 어람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⁷⁴⁾ 김계온의 문집인 『寤軒私稿』에서도 『불기록』에 실었던 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⁷⁵⁾

초계문신 제도와 과시·과강은 각각 옛날의 賜暇讀書와 月課에 비견되었으며, 여기에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기르려는 정조의 뜻이 담겨있었다. 주자소에서 책을 교정하고 글을 지으며, 집안사람이나 어린 자식을 대하듯이 하는 정조의 관심을 받는 것은 몇몇만이 독점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⁷⁶⁾ 이는 정조가 과시·과강 및 각종 서적의 편집·교정 작업 등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조가 ‘다른 문신들과 자별하다’라고 말하며 분부했을 정도로 초계문신 7인에게 ‘불기록’이란 누구나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며,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도 신현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과거를 추억하는 시문을 지었다.

72) 申絢, 『實齋遺稿』 1, 序, 「不欺錄序[戊午].」.

73)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卷20, 題跋[上], 「不欺錄跋」.

74) 朴允默, 『存齋集』 卷16, 詩, 「謹挽領中樞府事淵泉洪公[奭周].」.

75) 金啓溫, 『寤軒私稿』 3, 私藁, 吟哦錄.

76) 『不欺錄』, 「不欺錄序[金啓溫].」.

V. 맺음말

평소 꾸준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정조는 1798년 11월 25일 밤에 규장각 서리를 통해 주자소에서 입직 중이던 초계문신에게 ‘불기록’이라고 제목을 붙인 공책을 내려 한 달 동안 각자의 일과를 기록하라고 명했다. 주자소의 별칭인 ‘규영신부’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던 이들이 다른 문신들과 차별하기에 내려진 명이었다. 신현을 비롯한 초계문신 7인이 기록한 내용은 독서뿐만 아니라 근무, 시강, 제술, 교인, 영상으로 다양했다. 또한 이들이 친시·과시 및 과강에 응시하고 주자소에서 편찬한 서적과 관련하여 편집·교정의 실무에 참여했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승하한 후에 신현은 베껴 쓴 『불기록』에 자신이 지은 서문을 추가하여 동료 문신들에게 보내고, 각자 과거를 추억하는 시문을 지어 직접 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 사이 세상을 떠난 조석중을 제외하고 권준·김계온·김근순·황기천·홍석주가 『불기록』을 회람하고 신현의 요청에 화답했다.

초계문신의 활동 기록 ‘불기록’은 17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31일에 불과하며 내용 또한 소략한 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정의 인재로 성장할 젊은 신하들이 꾸준한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속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를 바라는 정조의 뜻이 담겨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초계문신들이 과거를 추억하며 시문을 짓고 친필로 기록한 것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조가 초계문신들과 함께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신현과 같은 시기에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류이좌는 정조가 經書나 朱子書의 選本을 많이 편찬한 까닭에 후대 국왕이나 학자들이 간편하고 쉬운 길만 찾지 않을까 우려했다.⁷⁷⁾ 역시 초계문신 출신이었던 정약용은 이미 과거에 합격하여 등용한 자를 다시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은 인재를 대우하는 방법이 아니며 제술과 강경을 겪으면 意氣가 꺾여 임금의 私人이 되게 만드니 아예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⁸⁾ 심지어 그가 초계문신 시절 지은 四六文의 상당수를 폐기하거나 ‘후회를 기록하는’ 뜻의 『例水文箒』에 수록했다.⁷⁹⁾

77) 김문식(2019), 앞의 논문, 19-20쪽; 심경호(2019), 앞의 논문, 36쪽.

78) 丁若鏞, 『經世遺表』 1, 春官禮曹 3, 禮官之屬, 『弘文館』.

79) 심경호(2019), 앞의 논문, 38쪽.

『불기록』이라는 자료가 애초에 왕명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참여한 초계문신은 정조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계문신 제도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성향이나 학문적 지향점에 따라 갈렸으며, 이 중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불기록』과 같이 초계문신 출신 관료가 직접 남긴 자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면 제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은 물론 더 나아가 정조의 君師論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廣州 平山申氏 申大羽 典籍 1차.

『國朝寶鑑』.

『奎章閣志』.

『內閣日曆』.

『文臣講製節目』.

『承政院日記』.

『淵泉先生文集』.

『瘠軒私稿』.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存齋集』.

『朱夫子詩』.

『弘齋全書』.

○ 논저

강석중, 「연천 홍석주의 교유시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9, 2011.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 편,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成都日錄 영인본·역주본』, 경기도박물관, 2008.

김광년, 「奎章閣의 1781년: 『內閣日曆』을 통해 본 抄啓文臣 應製의 실상」, 『동양고전연구』 85, 2021.

김문식, 「尙書講義를 중심으로 본 正祖의 經學사상」, 『한국사연구』 75, 1991.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김문식,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동양학』 76, 2019.

김문식 외,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15: 應旨進農書 I』, 농촌진흥청, 2009.

박선이,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30, 2018.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義』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2016.

백민정, 「『경사강의』를 통해 본 정조시대 학문적 논쟁의 양상」, 『국학연구』 16, 2010.

백민정, 「정조의 사대부 인식과 정치철학적 입장 연구」, 『한국실학연구』 20, 2010.

설석규, 「奎章閣 研究(下): 正祖代의 政局과 관련하여」, 『대구사학』 31, 1986.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2016.
- 심경호, 「鶴棲 柳台佐의 廣和와 應製에 관하여」, 『동양학』 76, 2019.
- 안병걸, 「正祖 御製條問의 經學觀: 『經史講義』, 大學條問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2001.
- 오보라, 「申絢의 『日錄』 연구: 기록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오보라, 「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 聯句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 2017.
- 정상준,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교육사학연구』 30, 2020.
-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 창녕조씨대중회 편, 『昌寧曹氏世譜辛亥譜』, 2007.
- 최두진, 「정조대의 초계문신 교육제도 연구」, 『교육사상연구』 23, 2009.
- 평산신씨문회공파보소 편, 『平山申氏文僖公派世譜』, 1997.
- 한영우,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지식산업사, 2008.
- 한예원, 「조선 실학시대 君臣間의 학문 활동: 『詩經講義』를 통해 본 正祖와 丁若鏞의 경우」, 『남명학연구』 16, 2003.
- 함영대, 「경사강의(經史講義)의 안과 밖: 조선학술사에서 군사(君師)라는 지위」, 『태동고전연구』 44, 2020.

○ 기타

-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www.emuseum.go.kr).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kyudb.snu.ac.kr).
- 한국고문헌중합목록(www.nl.go.kr/korcis).
-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Abstract

The Activities and Memories of Chogyemunsin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the *Bulgirok*

Lee, Eun-jin

This study examine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eation of the *Bulgirok* (不欺錄) composed by Chogyemunsin (officials in training at Gyujanggak)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analyzes its contents. On the 25th day of the eleventh month of 1798, King Jeongjo gave a notebook to Chogyemunsin stationed at Jujaso (Type Foundry) and ordered them to record the books they read for one month. King Jeongjo called their records *Bulgirok*, which means “unbiased record.” The Chogyemunsin, including Sin Hyeon, meticulously recorded the titles, contents, and reading methods of the books they selected. During this period, they also documented their participation as Chogyemunsin in the composition and oral examinations, as well as their editing and revision of books published at the Jujaso. After the death of King Jeongjo, Sin Hyeon wrote a preface for the *Bulgirok* and sent it to his fellow scholars, asking them to write reflective poems about their past experiences and record their reflections in the book. The *Bulgirok* encapsulates the greatness and memories of the scholarly monarch King Jeongjo and the officials who served him in their youth.

keywords

Bulgirok, King Jeongjo, Chogyemunsin, Sin Hyeon, Kwon Jun, Kim Gye-on, Kim Geun-sun, Cho Seok-jung, Hong Seok-ju, Hwang Gi-cheon

